

표준화와 언어의 표준화



정혜정
평택대학교 교수
031-610-8110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적 혁신은 지금 기술융합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시장의 개척과 연구 개발을 통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은 국내의 시장경쟁이 아닌 국제 시장경쟁으로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제표준에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주로 고려되었던 기술개발과 기술융합은 표준화가 고려되지 않고는 경쟁력이 없으므로 표준화를 고려한 기술력을 향상 시켜야 할 것이다. 표준화를 고려하지 않은 시장경쟁의 제품은 호환성 부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수요가 증가할 수 없으며 기술개발의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국내에서도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분야에 표준화를 고려한 제품 개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연구는 지속적인 관심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표준화 연구에서 특히 국제표준화라는 관점에서는 기존에 수용자 입장에서 표준화를 준수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표준화의 선두주자로서 국제 표준화를 우리가 제안하고 앞선 기술을 세계시장에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나 MP3의 경우에도 충전기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 입장에서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의 데이터베이스도 표준화 되어 있지 않으면 부서마다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서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몇 년전 부터 표준화 연구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현재는 많은 분야에서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 표준화는 개별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표준화의 채택여부는 특허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표준화의 선점은 곧 특허권으로 인식되고 있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표준화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DMB의 경우 핵심 특허 기술의 대부분이 유럽업체에서 보유하고 있

어서, 특히 점유율과 로열티 수입의 80% 이상을 유럽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와이브로의 경우는 삼성전자, ETRI, KT 등 국내 주요 기업 및 연구기관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의 기술은 2005년 IEEE 802.16e 표준으로 제정되어 삼성전자 경우는 와이브로 특허기술 수입의 22%를 받고 있다고 한다.

표준화와 함께 특허기술의 보유에 성공한 와이브로의 경우는 기획에서부터 원천기술 확보에 역점을 두어 현재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이와 같이 기술개발에 앞서서 표준화를 고려하여 진행된 프로젝트의 경우에 경쟁력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잇점을 창출할 수 있으며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다. 물론 표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즉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앞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이 느려진다는 것과, 너무나 표준화라는 관점에서 규정을 강화하다보면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대체적으로 표준화를 고려하여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대기업 들이라 중소기업에서 표준화를 고려하여 기술 개발을 하다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시장 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그러나 표준화에 대한 연구는 지금의 시점에서 시장 경쟁을 고려하여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며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기업과 기업간 데이터 호환이나 기업과 정부간 데이터 호환 등 여러 면에서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모든 면에서의 장기적인 표준화 연구는 상당히 중요한 발전 요인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표준화에 발전과는 다소 역행되어지는 현상이 똑 같은 표준화란 의미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아닐까 생각한다.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서울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우리나라의 표준말이라는 배웠

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울에서 사용되어지는 표준말을 쓰는 것을 당연시 되었다. 그래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울에 오면 지방에서 왔다는 표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서울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흉내내기 위하여 노력했었다.

그러나 억양이 다르고 용어가 다소 다른 형태로 사용되어지면서 오히려 우스운 발음을 연출하게 되어 웃음을 자아내곤 했었다. 또한 점으로 이루어진 제주도의 경우 특유의 방언을 사용하여 제주도 에 가면 미국에 간 것처럼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곤 했다. 그러나 요즘은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고 세대 간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표준말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으며, 특별히 지방에 거주한다고 해서 지방색이 드러나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대학을 진학하는 신입생들의 거주지만 하더라도 대학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우보다는 지방 각처에서 학교를 지원해서 오다보니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언어가 다소 다르다는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표준말을 사용하여 지방색의 특색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사용하는 언어와는 다르게 문자로 전달되어지는 언어에는 다소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부터 학과 제자들로부터 문자로 전해지는 메시지를 전해 받거나 전자메일이 전해지면 항상 내가 자주 접하지 않는 기호화된 언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휴대폰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은 짧은 공간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취약점으로 인하여 많이 축소된 언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의미 전달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용어를 다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될 정도로 나도 모르게 기호화된 언어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언어의 경우는 소리가 나

는 대로 언어를 사용하면서 빨리 쓸 수 있다는 장점과 복잡한 맞춤법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지금의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대표적인 예로 남자 친구의 의미인 남친이나, 열심히 공부한다는 의미의 열공이나,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의 의미인 생얼 등은 그나마 많이 보편화 되어 있는 새로 생성된 언어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언어들은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사용되어지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글을 쓰면서 요즘 학생들이 흔히 사용하는 신종 용어에 대한 궁금증이 들기에 인터넷을 검색 해 보았다.

많은 학생들이 요즘 사용하는 인터넷 용어부터 신종 용어에 대해서 수록해 두었기에 살펴보니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과 늘 대화를 나누면서 지내는 나 도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혀 알 수 없는 용어였다. 예를 들어서 완소가 완전소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자못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며, 솔까말이 솔직히 까놓고 말 해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며, 눈팅이 어떤 게시물에 댓글은 달지 않고 보기만 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거의 모든 용어들이 너무도 축약된 상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어 잠깐 들어서는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현재의 학생들은 자주 이런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전체적인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 축약된 신종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에 표준어를 잊어버린 채 대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구조는 편한 것을 좋아하기에 특히 요즘 세대들에게는 불편한 형식에 맞추어진 생활 보다는 편위주의 생활을 선호하므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바른말 고은말보다 일상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쉬운 용어를 선택해서 글을 전달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에 익숙해져서 표준말을 잊어가게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 다소 걱정스럽

다. 요즘 인터넷의 보급과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신종 용어들도 상당수 생겨나고 있으며 전문적인 용어도 상당히 많이 생성되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세대별 언어의 장벽이 생기고 의사소통에도 다소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동시에 일어난다. 세계의 환경이 변화되고 다소 복잡화 되어지면서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활에는 많은 편의성이 도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세대적인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날로 많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얼마 전 표준화에 관련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질문에는 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는 문항과, 표준화를 어느 분야에 적용시켜서 기술 변화를 기대하도록 연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와 국제표준 문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표준화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잇점은 무엇이며 이것을 정량적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특히 국내 표준문서를 인용하여 표준화를 하는 경우와 국제 표준 문서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장단점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다.

앞에서도 기술한 것과 같이 표준화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표준화는 필요한 연구 분야이며 앞으로도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 분야라고 고려되어진다.

부질서한 부분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무질서를 그대로 남겨둔 채 기술개발에만 전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국내에서 선점할 수 있는 표준화 부문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우리글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세대들이 즐겨 쓰는 변형된 언어보다는 우리글, 우리말을 사랑하도록 표준화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시대로 인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교체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진다. 앞으로 국내의 기술이 세계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표준화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해서도 좀더 정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표준화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지게 될 지금 우리 아이들은 기술의 선점에 앞서서 표준화에 대한 신점을 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져야 할 것이다.

! 기술표준 2009. 10